



광주-대구 지역사회공동체 달빛동맹 강화

광주시와 대구시의 달빛동맹이 더욱 박차를 가한다. 29일 광주시사회서비스원,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광주여성가족재단은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과 지난 26일 광주여성가족재단 9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은 광주시-대구시의 동서 화합과 '달빛동맹'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가족·복지·교육·돌봄 등 분야별 공동발전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협약 내용은 △성평등·사회서비스·평생교육 분야 별 협력사업 △정책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원 가치창출을 통한 공동체 강화 △연구·교육·홍보 등 지역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의 상호협력 내용으로 이뤄졌다. 노병하기자



광주서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 정기총회

'협력과 혁신으로 쓰는 전시장계의 새 장'이라는 슬로건으로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협회장 이필근,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 정기총회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광주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29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국 전시장컨벤션센터 15개 기관의 대표이사 및 실무자들이 참석해, 광주만의 독특한 장소(유니크 메뉴)를 둘러보고 광주의 맛과 멋을 경험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광주관광공사의 'CRM 기반 통합고객관리시스템', '코엑스 전시장 안전관리 시스템' 소개 등 지속 가능한 전시장 운영을 위한 혁신사례를 공유하며 최근의 현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최권범 기자

조선대병원 임동훈 교수,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회장

조선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임동훈(사진) 교수가 지난 2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2차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29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는 최근 나날이 커지는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요로감염에 대한 각종 새로운 지식들에 관한 정보의 공유 등으로 요로감염에 대한 학문에 대해 전문적인 발전 등을 목표로 하는 단체다.

임 신임 회장은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장에 취임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회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학회 발전과 의료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학회의 주요 사업인 학술연구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의료진



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 △성매개감염예방을 위한 공중보건사업 △국책과제&연구용역사업 △감염 기초연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추진할 예정이다.

임기는 2024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2년간이다.

임 교수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 듀크대학교 메디컬센터 방문교수,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홍보이사, 학술이사, 대한내비뇨의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고 조선대병원 비뇨의학과장, 대외협력실장, 부원장, 광주금연지원센터장,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장 등 활발한 활동을 한 바 있다. 노병하기자



광주은행, 광은리더스클럽 정총·강연회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9일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CEO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은리더스클럽 2024 정기총회 및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내 사랑나눔 봉사활동과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주요 내용으로 2024년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이어 '조금만 변해도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개그맨 서경석 강사가 강연을 펼쳤다.

'광은리더스클럽'은 지난 2007년 9월에 창립해 17주년을 맞이했으며, 현재 25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들의 모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속적인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하면서 지역의 명문 클럽으로 성장했다. 최권범 기자



적십자봉사회 해남지구협, 사랑의 꾸러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26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해남지구협의회가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위치한 해남 나눔터에서 어르신 효도 사랑의 꾸러미 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이번 봉사활동에는 해남지구협의회 봉사원 35명이 참여했다. 봉사원들은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꾸러미를 제작해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160분에게 전달했다.

사랑의 꾸러미는 돌자반, 두부, 계란, 떡, 바나나, 음료수 등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식료품 위주로 구성됐다.

윤현미 해남지구협의회 회장은 "고물가로 인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홀로 계시는 어르신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며 "해남군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상이 기자

'버블 검' 뮤비 감독, 민희진과 대화 공개 간접응원

결그룹 뉴진스 신곡 '버블 검' 뮤직비디오 감독 A씨가 어도어 민희진(사진) 대표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민 대표를 간접 응원했다.

29일 연예계에 따르면, '버블 검' 뮤직비디오 감독 A씨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희진 대표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캡처해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 대표는 지난 21일 A씨에게 "OO아 안녕 ㅋㅋㅋ 혹시 버블검 가편은 언제될까"라고 물었다. "지금 뽑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자, 민 대표는 "고맙다 ㅋㅋㅋ 스튜디오로 뭐 맛있는 거 보내줄까"라고 했다.

A씨가 "괜찮습니다. 가편 보시고 괜히 보냈네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일단



보시고"라고 하자, 민 대표는 "ㅋㅋㅋ 가편 보고 먹고 힘내서 다시 해라"라고 격려했다. A씨는 민 대표의 따뜻한 면모를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해당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최대 K팝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내부고발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하이브 레이블즈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뉴진스 신곡 '버블 검' 뮤직비디오는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1300만회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뉴시스



광주 서구, 상반기 공직자 청렴교육 추진

광주 서구(정장 김이강)는 29일 간부공무원, 승진자, 신규자 등 공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와 가까운 청렴'이라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부패 방지와 갑질 예방 교육으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은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는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을 안내하고, 음주운전 처벌 및 사례 등을 교육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인 청렴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시간이었다"며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직원들 모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담양 무정면 적십자봉사회, 세탁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담양 무정면봉사회가 지난 23일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을 위한 이불세탁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사진)

이번 봉사활동은 담양군 무정면 솔지마을회관에서 진행됐으며 무정면 봉사원 16명이 참여했다.

보송보송 빨래한데이는 취약계층 및 홀몸 어르신 가구의 이불, 커튼 등 대형세탁물 빨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 세탁물은 이동세탁 차량과 봉사원들의 손길로 깨끗하게 세탁·건조를 거쳐 각 가정에 배달됐다.

장연희 무정면봉사회 회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봉사원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상이 기자

'성희롱 발언' 의혹 휩싸인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35·사진)이 작곡비 사기, 성희롱 발언 의혹에 휩싸였다.

29일 JTBC는 유재환이 피해자 A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재환은 2022년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녀 노소 작곡비 없이 곡을 드린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곡당 약 130만원을 받았으며, 유재환에게 제대로 곡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재환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하는 A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 생각했다. '엄마가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 '본인이 사고가 나서 입원했다' 등 건강상의 이유로 미뤄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재환은 특히 작업을 이유로 사람들과 친해진 뒤, 수백만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 채팅방 인원만 200명이 넘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피해 액수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유재환은 여성들에게 여러 차례 호감을 표현하면서 관계를 이어갔다.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유재환은 "우리 몇 번만 자고 나서 사귀는 건 어때냐", "둘 다 좋아하니 그러면 마음이 더 단단해질 것 같아요", "섹X(성적 파트너)로 오래 지낸



경우도 많았다", "저는 섹시 토크, 더티 토크도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몸을막만 지기도 했다. '나는 네가 너무 좋아서 그런다. 진짜 어머니도 걸 수 있고 하느님도 걸고 너에게 진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작곡가 정인영과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유재환은 A씨에게 "여자친구와 절대 그런 사이 아니다. 내가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나의 배다른 동생이다. 숨겨진 가족사까지 다 드러내길 바라는 거냐"고 해명했다. JTBC는 유재환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재환은 논란이 일자 지난 26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개인적인 일들이 여럿 중첩해 생겼고, 그러면서 건강의 이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금전적 피해를 드리려 한 것은 아니다"고 적었다. 이어 "곡 작업은 진행은 되었으나 마무리하지 못하다 보니 본인에게 자주 연락을 피하게 됐다. 마음에 드시는 작업물을 전달하기 위해 다시금 최선을 다하겠다. 금전적으로 돌려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DM(다이렉트 메시지)이나 따로 연락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